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산모들은 홀로 남아 '독박 육아'로 표현되는 엄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건강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생애 초기 육아를 돕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서울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간호사의 가정방문은 가정방문만으로 끝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다른 엄마들을 만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를 맞이하기 위해 엄마가 열어 놓은 문을 통해 제대로 된 공동체라면 마땅히 주어져야 할 공공서비스가 엄마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모토로 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는 많은 산모와 가족들이 참여하였고,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국내로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이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매해 배출되어 100명에 이르렀고, 작년에만 서울시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둔 16,000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나눔터'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산모들이 육아 경험을 나누고 우리 공동체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로 구성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자세한 면모를 보실 기회입니다. 공평한 미래를 열기 위해 인생의 첫 장을 여는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9년 10월

서울특별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지원단

사회 전회원 서울시 아나운서

13:30~14:00	등록 및 전시	
14:00~14:05	내·외빈 소개	
14:05~14:10	인사말	박원순 서울시장
14:10~14:15	축사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14:15~14:2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경과 보고	박경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
14:20~14:50	자치구별 기념 사진 촬영	
14:50~15:3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경험과 정보 나눔터	
	엄마의 육아경험 공유	
	아동발달 상담 코너	
	아기 마사지 교육	
	똑똑똑, 아기와 엄마는 잘 있나요? 저자와의 만남	
	사업관련 각종 정보부스 운영	
15:30~16:20	사업 참여자의 발언대	강영호 지원단장, 서울대
16:20~16:30	종합정리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수유 공간이 준비됩니다.

〈신청방법〉 이메일 : equitystart@daum.net

사업에 참여하셨던 산모님께서서는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영유아건강 간호사에게 신청하세요.